

## 대전지역 전업주부들의 학력수준에 따른 식품구매 실태조사<sup>+</sup>

이선영 · 김경은 · 권순자\*

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배제대학교 외식급식경영학전공\*  
(2001년 3월 18일 접수)

## Food Purchase Behavior of Taejon Full Time Housewives with Different Education Levels<sup>+</sup>

By Sun-Yung, Kim Kyung-Eun and Kwon Sun-ja\*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Nutrition and Food Service management, Paichai University\*  
(Received March 18, 2001)

### Abstract

A surve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food-purchase behavior of 197 Taejon full time housewives 30 to 49 years of age. Food purchase was assessed using a questionnaire and the resulting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programs. Demographic data revealed that most of the households have three to five family members and that the Engel Indices of the participating households were mostly between 10 and 30%. Noticeable results of the food purchase assessment are as follows. In the grain and grain products items, the low-education group purchased more rice and barley than the high-education group, whereas the high-education group purchased more glutinous rice, brown rice, bread, macaronis and spaghetti than the low-education group. In the vegetable items, the low-education group purchased more Chinese cabbage and radish than the high-education group, while the high-education group purchased more head lettuce, broccoli and sweet pepper than the low-education group. In the meat items, the beef purchase was higher in the high-education than in the low-education group, while the pork purchase was higher in the low-education than in the high-education group. In the processed meat items, ham was the most favorite purchase item regardless of the education level. In the fish and shellfish items, Pacific cod and Alaska pollack were purchased more in the low-education than in the high-education group, and salmon and dried icefish strip were purchased more in the high-education than in the low-education group. No items in fruit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urchase amount between the low-education and the high-education group although the latter purchased more imported-fruits such as melons, kiwis, grapefruits, and oranges. Dairy products such as milk, cheese and butter were purchased more in the high-education than in the low-education group. It was also found that both the number of food items and the consumption of foods coming from animals were higher in the high-education than in the low-education group.

**Key words :** Food purchase behavior, Different education level, Food item

<sup>+</sup> 본 연구는 태평양장학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Ly Sun-Yung,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20 Gung-dong, Yusong-gu, Taejon 305-764,  
Korea Tel.: 82-42-821-6838 Fax: 82-42-822-8283 E-mail: sunly@cnu.ac.kr

## 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영양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영양의 불균형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식품의 고른 섭취가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면에서 주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주부가 가족들에게 다양한 식품을 사용하여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가족들의 건강면에서 좋을 뿐만 아니라 가족 내 바람직한 식문화의 형성을 통해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가 구입하는 식품의 종류와 양은 그 주부의 식사준비에 대한 관심도와 식품선택의 성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흔히 주부들의 식품구매 성향은 가족들의 기호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sup>1)</sup> 식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습관적으로 구입하던 식품만 구입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경우 자연히 가족들의 식생활은 다양하게 형성되며 이는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식습관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부들의 식품 구입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그 동안의 연구자들<sup>1)-4)</sup>에 의하면 주부들의 식품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는 성,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 외에도 가족들의 기호도, 주부와 가족의 건강과 영양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의 차이 등이 있다. 특히 주부들의 교육 수준은 실제로 소비하는 식품의 내용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는 몇몇의 연구보고들<sup>1),2),5)</sup>이 있기는 하지만 각기 조사 대상자들의 학력을 구분한 기준이 다르고 특히 식품의 항목을 세분화하여 조사한 연구보고는 거의 없었다. 사회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부들의 취업율은 늘어나고 모든 가사 관련 노동은 덜 시간집약적인 쪽을 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족의 외식 횟수가 늘어나면서 주부들이 식품을 구입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또한 선호하는 식품의 구입형태도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부터 편의식품이나 반조리 식품 등 가공 정도가 많은 형태로 바뀌어나갈 것으로 보인다<sup>5)</sup>. 미국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편의식품 사용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sup>6)</sup>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의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가계의 식품구입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계의 식생활을 주로 담당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식품 구입량 및 구입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본보에서는 특히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구입하는

식품의 양과 다양성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주부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주부의 학력 수준을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 나누어 식품 구매실태를 조사하였다.

## II.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는 몇 개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30, 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은 살림을 직접 맡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가족의 식생활을 위하여 직접 대부분의 식품을 구매하는 주부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199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설문지에 대하여는 전화와 직접 면담을 통하여 보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최종 설문지 부수는 197부였다.

## III.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피설문자들의 일반 사항과 각 식품군별 식품구입량을 조사하고 편의상 피설문자들의 학력을 고졸 이하(저학력군)와 대졸이상(고학력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1. 일반환경

일반환경조사는 대상자의 연령, 한달 평균수입, 학력, 가족수, 앵겔계수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제시된 각 문항의 답항에서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가족의 구성은 각 연령층에 해당하는 가족의 수를 적도록 하였다. 가족의 구성연령은 2세 미만, 2-9세, 10-19세, 20-49세, 50-69세, 70세이상으로 분류하였다.

### 2. 식품 구매량에 관한 항목

주부가 구입하는 식품은 총 7개군으로 나누어 곡류, 채소류, 육류, 어패류, 과일류, 우유 및 낙농제품, 난류 별로 구분하여 식품의 1회 구입량과 빈도를 기록하게 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구입빈도가 높은 식품들을 골라서 설문에 쓸 식품항목을 결정하였다. 또한 예비조사시 설문항목 중 가장 기록하기 어려워하였던 1회 구입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였다. 현재 시중의 도매와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들의 판매단위와 포장단위 등을 조사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판매단위들을 설문지내에 수록하였으며, 구입량의 단위는 가능한 중량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주로 사용하는 단위가 중량이 아닐 경우에는 부피나 1회 구입가격으로까지 기록하게 하여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기타의 구입에 대한 의문점은 설문지를 배부하는 시기와 설문지 회수시 괴설문자들의 질문에 설문자들이 응답하게 하여 가능한 자세한 자료를 얻도록 노력하였다. 구입빈도는 매일 1회, 1주에 2-3회, 1회, 한달 2-3회, 1회, 1년 5-6회, 3-4회, 1-2회, 그 이하(거의 안먹거나 전혀 먹지 않음) 등으로 표시하게 하였다. 1년동안 총 구입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구입빈도의 각각에 환산계수 365, 130, 52, 30, 12, 5.5, 3.5, 1.5, 0을 곱하였으며 이 총량을 가족수와 365일로 나누어 최종 결과는 1인당 1일 구매량으로 나타내었다. 환산계수는 매일 1회 구입하는 경우 일년에 365회를 구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산계수 365를 곱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주 2-3회 구입하는 경우는 그 중간값인 2.5회에 1년간의 주수 52를 곱한 값을 환산계수(130)로 하였으며 다른 환산계수도 이에 준하여 설정하였다. 2세 미만은 우유를 제외한 일반 식품의 섭취가 그다지 많지 않은 연령층이므로 가족수는 2세 미만의 어린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가족수로 산출하였다. 특정 계절에 다량 출하되는 성향이 가장 심한 과일들은 김<sup>8)</sup>의 방법

을 도입하여 1인1일당 구입량을 산출할 때 특히 한 달에 1회 이상 빈번히 구입하는 경우에는 과대평가 될 수 있으므로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다량 출하되는 시기를 조사하여 년중 비율을 산출하고 1년 총 구입량에 이 비율을 곱하여 1인 1일당 구입량으로 산출하였다.

###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SPS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 처리되었다. 모든 연속형 변수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범주형 변수는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또한 각 변인간의 차이에 대한 검증은  $\chi^2$ -test 및 t-test를 이용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고찰

### 1. 일반환경

설문 대상자들의 연령은 30대가 많았으며 대학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30대 주부들이 전체의 59.9%를 차지하였다. 학력에 따른 가족수의 분포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가족수는 학력에 무관하게 4인의 가족이 가장 많았으며(67.0%) 5인이하의 경우가 전체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ample

N(%)

		≤ High school (n=79)	≥ College (n=118)	Total (n=197)	$\chi^2$ -test
Age(years)	30-39	42(53.2)	86(72.9)	128(65.0)	$\chi^2=8.083$ df=1 p<0.01
	40-49	37(46.8)	32(27.1)	69(35.0)	
Family Size (persons)	2	1( 1.3)	3( 2.5)	4( 2.0)	$\chi^2=5.021$ df=6 N.S.
	3	15(19.0)	16(13.6)	31(15.7)	
	4	52(65.8)	80(67.8)	132(67.0)	
	5	8(10.1)	17(14.4)	25(12.7)	
	6	2( 2.5)	1( 0.8)	3( 1.5)	
	7	1( 1.3)	0(0)	1( 0.5)	
	8	0(0)	1( 0.8)	1( 0.5)	
Monthly Income (10,000 won)	0-99	16(20.3)	2( 1.7)	18( 9.1)	$\chi^2=64.386$ df=3 p<0.001
	100-199	47(59.5)	27(22.9)	74(37.6)	
	200-299	14(17.7)	52(44.1)	66(33.5)	
	≥300	2( 2.5)	37(31.4)	39(19.8)	
Engel Index	<10%	7( 8.9)	7( 5.9)	14( 7.1)	$\chi^2=3.988$ df=3 N.S.
	10-<20%	42(53.2)	50(42.4)	92(46.7)	
	20-<30%	27(34.2)	57(48.3)	84(42.6)	
	≥30%	3( 3.8)	4( 3.4)	7( 3.6)	

의 97.5%로 대부분이 핵가족이었다(표 1)。

가계의 수입은 학력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학력층 주부들의 가계의 한달 수입은 100-199만원대가 56.6%로 가장 많았고, 고학력층 주부들의 가계에서는 200-299만원대가 44.2%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100만원대와 200만원대의 수입을 갖는 경우가 각각 37.6%와 33.5%로 대부분이었으며 3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갖는 가계는 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소지하는 주부들의 가계이었다.

학력수준에 따른 엠겔계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아질수록 식품비로 지출하는 액수는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전체 조사 대상자들의 엠겔계수는 10-20%인 경우가 46.7%, 20-30%가 42.6%로 나타나 전체의 90%정도가 10-30%에 속하였다. 고졸이하 학력의 주부들의 가계에서 엠겔계수가 10-20%미만인 가계는 53.2%, 20-30%미만은 34.2%인데 비하여 대졸이상의 주부들 가계의 엠겔계수가 10-20%미만인 경우는 42.4%, 20-30%인 경우는 48.3%로 가계의 수입이 많은 고학력층 주부들의 가계일수록 식품비 지출이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고전적인 개념으로는 수입이 증가하면 식품비의 소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최근에는 가계의 수입이 높을수록 식품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9,10)</sup>. 식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일수록 외식에 지출하는 비용이 늘고 반조리나 가공된 식품의 구입량이 많아짐을 들 수 있다<sup>11)</sup>. 외식이 점차지는 이유로서는 외식산업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핵가족화 되면서 외식을 하기가 수월해졌고 식도락가들이 많아진 점과 특히 직업을 갖는 주부들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2. 식품구매량

### 1) 주식

주식의 식품 구입량은 밥류와 서류, 두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밥류는 다시 세분하여 곡류, 빵류, 면류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서류는 감자와 고구마에 대하여 조사되었다(표 2).

주식의 식품 중 두 학력군 간에 구입량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던 품목은 쌀, 찹쌀, 현미와 곡류 소계, 흰빵, 마카로니·스파게티, 주식식품 합계 등이었다. 보리, 빵류 소계, 국수·우동, 두부는 95% 신뢰도에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90% 신뢰도에서는 고졸이하의 학력군과 고학력층의 주부 간에 구입량에 있어

<Table 2> Means of staple food purchase by education level

(g/capita/day)

Food Item	Education Level		t-test
	≤ High school	≥ College	
Rice	179.28±10.10	125.25±9.36	***
Rice, glutinous	2.98±0.56	6.42±1.10	**
Rice, brown	2.05±0.50	5.27±1.11	**
Barley	4.82±0.93	2.88±0.48	p=0.068
Rice, black	4.04±1.32	3.10±0.48	
Miscellaneous grains	1.44±0.39	2.56±0.67	
Grains total	189.8±11.1	140.9±9.9	***
White bread	11.99±2.92	22.69±2.36	**
Rye bread	10.96±3.31	7.59±1.71	
Sweet breads	7.12±1.19	8.93±0.99	
Bread total	29.93±4.81	39.02±3.09	p=0.097
Noodle	14.61±3.87	6.96±0.93	p=0.058
Starch vermicelli	2.30±0.32	2.45±0.31	
Naeng Myon	1.92±0.42	1.65±0.31	
Mocaroni, Spaghetti	0.30±0.10	2.56±0.51	***
Noodles total	18.92±3.99	13.60±1.22	
Flour	9.68±1.63	7.33±0.72	
Corn flakes	4.81±0.99	6.27±0.98	
Flour, cornflake total	14.48±1.78	13.41±1.25	
Potatoes	26.99±4.97	22.77±2.44	
Sweet potatoes	15.19±2.28	12.81±1.80	
Potatoes total	41.84±6.33	35.48±3.24	
Soybean curd	23.49±2.29	28.22±2.19	p=0.071
Kinney beans	2.12±0.69	2.74±0.88	
Green peas	1.45±0.54	1.39±0.36	
Soybeans	0.51±0.14	1.25±0.44	
Small red beans	0.66±0.12	0.75±0.14	
Cowpeas	0.80±0.23	0.64±0.22	
Mungbeans	0.46±0.24	0.72±0.21	
Miscellaneous beans	0.00±0.00	0.98±0.69	
Beans total	29.09±2.58	36.10±2.65	
Staple Food Total	324.1±17.6	278.5±12.2	*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밀가루나 콘플레이크, 두류나 서류의 구입량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쌀, 보리, 국수·우동의 구입량은 저학력층의 주부들이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찹쌀, 현미, 흰빵, 마카로니·스파게티 등은 고학력층의 주부들이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류의 총 구입량과 총 주식의 식품 구입량은 저학력층의 주부들에서 더 많았다.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쌀의 구입량은 주는 대신 찹곡을 많이 이용하고 빵류의 구입량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성향은 최

의 다른 연구<sup>12,13)</sup>에서 보고되어 온 바와 같다.

## 2) 채소류

채소류에서는 특히 담색채소의 구입량에서 두 군간 유의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고졸이하의 학력 주부들은 평균 1인 1일  $267.4 \pm 24.3$ (g)을 구매하였고 졸이상의 학력의 주부들은  $170.7 \pm 9.8$ (g)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이 유의적으로 많은 양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담색채소에서도 무와 배추는 김치 재료로서나 그 이외의 용도로 구입한 량이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김치용 무나 배추는 고학력군의 주부들보다 저학력층 주부들이 월등히 많은 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에 조사된 연구<sup>14)</sup>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김치 종류로서 1위가 배추김치, 2위가 무김치, 3위가 깍두기인 것을 볼 때 배추와 무의 구입량은 김치를 담그어 넣는 량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담색채소는 도라지의 구입량은 고졸이하 학력의 주부들이 많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양상치와 우엉은 고학력의 주부들이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유색 채소에서 저학력층 주부들이 많이 구입한 것으로는 고사리로 나타난반면 피망이나 브로콜리와 같은 서양의 유색채소는 고학력층의 주부들이 많이 구입하였다. 90%의 신뢰도에서 고구마줄기, 풋고추, 쓈바나, 열무는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이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층 주부들이 샐러리, 케일, 토마토 등을 많이 구입하는 경향으로 보아 식생활이 서양화되어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담색채소와는 달리 유색채소의 구입총량에서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선택의 품목이 다를 뿐 유색 채소의 구입 총량은 비슷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진 등의 최근 연구<sup>12)</sup>에서는 학력이 높은 계층에서 최근 2년간 황색채소의 소비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버섯류의 구입량은 두 학력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목이버섯은 저학력층의 주부들이, 느타리와 표고버섯은 고학력층의 주부들이 더 많이 구입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해조류 중 다시마를 제외한 나머지 식품들의 구입량은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다시마는 고학력층의 주부들이 비교적 많은 양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채소류의 구입 총량은 고졸이하의 학력군이 유의적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담색채소, 그 중에서도 특히 김치용 무나 배추의 구입량이 많

<Table 3> Means of vegetable purchase by education level

Food Item	Education Level		t-test p=0.076
	≤ High school	≥ College	
Chinese cabbage (for kimchi)	$74.14 \pm 10.84$	$37.89 \pm 3.49$	**
Chinese cabbage	$24.10 \pm 4.78$	$9.94 \pm 1.85$	**
Radish (for kimchi)	$57.80 \pm 9.40$	$21.40 \pm 2.58$	***
Radish	$25.38 \pm 7.09$	$12.02 \pm 2.27$	
Onion	$39.17 \pm 3.28$	$41.49 \pm 2.72$	
Cucumber	$18.01 \pm 2.05$	$20.78 \pm 1.93$	
Soybean sprout	$9.87 \pm 1.05$	$11.22 \pm 0.89$	
Cabbage	$9.56 \pm 1.30$	$10.90 \pm 1.53$	
Do Ra Ji	$4.96 \pm 1.36$	$2.07 \pm 0.35$	*
Head lettuce	$1.26 \pm 0.35$	$2.96 \pm 0.44$	**
Mungbean sprout	$1.38 \pm 0.32$	$1.71 \pm 0.24$	
Burdock	$0.75 \pm 0.24$	$1.75 \pm 0.34$	*
Do Dok	$1.43 \pm 0.79$	$0.85 \pm 0.15$	
Lotus root	$0.77 \pm 0.23$	$0.65 \pm 0.14$	
Bamboo shoot	$0.17 \pm 0.09$	$0.15 \pm 0.04$	
Light-colored vegetable total	$267.4 \pm 24.3$	$175.7 \pm 9.8$	***
Tomato	$16.27 \pm 3.58$	$24.59 \pm 4.46$	
Carrot	$15.71 \pm 2.26$	$13.58 \pm 1.20$	
Pumpkin	$14.93 \pm 2.85$	$13.36 \pm 1.15$	
Yolmu, Leafy radis	$14.66 \pm 2.12$	$10.12 \pm 1.38$	p=0.063
Lettuce	$8.56 \pm 1.36$	$8.24 \pm 0.82$	
Spinach	$5.03 \pm 1.18$	$5.51 \pm 0.57$	
Eggplant	$6.66 \pm 2.26$	$3.90 \pm 0.63$	
Green pepper	$5.68 \pm 0.95$	$3.85 \pm 0.46$	p=0.087
Mallow	$4.15 \pm 1.52$	$2.81 \pm 0.50$	
Shepherd' purse	$3.92 \pm 1.51$	$2.70 \pm 0.67$	
Perilla leaf	$3.66 \pm 1.12$	$2.23 \pm 0.31$	
Sweet pepper	$1.49 \pm 0.44$	$3.13 \pm 0.44$	**
wild garlic	$3.56 \pm 2.38$	$1.61 \pm 0.34$	
sweet potato stem	$3.12 \pm 0.77$	$1.70 \pm 0.29$	p=0.089
Bracken	$2.12 \pm 0.45$	$1.12 \pm 0.20$	*
Water dropwort	$1.22 \pm 0.31$	$1.21 \pm 0.24$	
Wild plant, Chwi	$0.89 \pm 0.28$	$1.28 \pm 0.38$	
Kale	$0.59 \pm 0.38$	$1.37 \pm 0.42$	
Broccoli	$0.11 \pm 0.06$	$1.37 \pm 0.45$	**
Celery	$0.51 \pm 0.19$	$0.96 \pm 0.20$	
Butterbur	$1.15 \pm 0.51$	$0.51 \pm 0.17$	
Sowthistle	$0.49 \pm 0.15$	$0.19 \pm 0.08$	p=0.082
Dark-colored vegetable total	$114.2 \pm 13.7$	$105.3 \pm 7.9$	

&lt;Table 3&gt; (continued)

(g/capita/day)

Food Item	Education Level		t-test
	≤ High school	≥ College	
Oyster mushroom	5.49±0.69	7.75±1.11	p=0.087
Winter fungus	3.97±0.61	3.97±0.46	
Lentinus edodes, raw	3.08±0.69	4.18±0.53	
Lentinus edodes, dried	0.87±0.27	1.12±0.25	
Juda's ear	1.07±0.37	0.44±0.12	p=0.111
Mushroom total	14.30±1.62	17.43±1.56	
Laver, dried	2.05±0.45	1.36±0.31	
Laver, toasted	0.43±0.16	0.52±0.09	
Sea mustard	0.98±0.19	0.93±0.25	
Sea lettuce	0.37±0.17	0.26±0.08	
Sea tangle	0.09±0.03	0.17±0.02	*
Seaweed total	3.90±0.62	3.24±0.45	
Vegetable Total	399.8±33.4	301.6±16.5	**

\* p&lt;0.05 \*\* p&lt;0.01 \*\*\* p&lt;0.001

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 이들 주부들은 아직 시판되는 김치를 구입하여 먹는 정도가 적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1994년에 김치의 구입여부를 조사한 강 등의 연구 논문<sup>2)</sup>에서는 학력에 따른 구입빈도의 차이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5년간 김치의 가공 및 유통기술이 많이 발전하여 주부들의 김치 구입 빈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본 연구 결과와 같이 학력이 높을수록 또한 생활에 여유가 있을수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김치의 구입량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 3) 육류

구입한 쇠고기 중 갈비, 채끝살, 흥두깨살은 고학력군에서 유의적으로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쇠고기 및 부산물의 구입 총계는 역시 고학력군에서 많았다. 돼지고기 및 부산물 중 특히 돼지 목살과 갈비, 돼지의 부산물은 저학력층의 주부들이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학력의 차이보다는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가금류나 개고기, 기타의 육가공품 구입량은 두 학력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사항은 육가공품 중 구입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저학력층의 주부들은 순대를, 고학력층의 주부들은 소시지를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육류의 구입총량에서는 두 군간에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어 고기의 소비의 절대량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lt;Table 4&gt; Means of meat and meat-product purchase by education level

(g/capita/day)

Food Item	Education Level		t-test
	≤ High school	≥ College	
Beef	Loin,	10.76±2.00	13.38±1.06
	Tender loin	8.16±1.54	10.15±0.87
	Brisket	4.11±0.67	6.58±0.69
	Ribs	1.84±0.25	2.65±0.49
	Leg	0.46±0.19	2.29±0.47
	Short lion	0.37±0.22	2.26±0.43
	Tail	0.16±0.06	0.15±0.07
	Viscera	26.43±3.30	38.69±2.53
Pork	Subtotal	15.51±1.78	11.79±1.31
	Belly	11.29±1.63	7.13±0.85
	Shoulder	7.46±1.39	3.18±0.56
	Ribs	3.73±0.96	4.00±0.66
	Leg	0.73±0.25	0.73±0.42
	Viscera	0.04±0.03	0.36±0.24
Poultry	Subtotal	38.27±3.72	27.09±2.39
	Chicken	15.09±1.98	13.06±1.59
	Duck meat	0.34±0.20	0.15±0.07
Miscellaneous Meat	Subtotal	15.23±2.00	13.21±1.60
	Dog meat	0.51±0.20	0.24±0.12
Processed Meat	Ham	5.55±1.23	4.43±0.78
	Sundae	3.42±0.74	2.18±0.31
	Sausage	1.99±0.41	2.84±0.91
	Bacon	1.79±1.16	0.76±0.15
	Subtotal	12.54±2.74	10.15±1.50
Meat Total		92.98±8.19	89.38±5.31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의 연구<sup>10)</sup>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은 군에서 육류의 소비량이 더 많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진의 연구<sup>12)</sup>에서는 최근 2년간 육류의 소비량 증가 추세가 학력이 높은 계층에서 더 큰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4) 어패류

유색생선에서 고학력의 주부들이 연어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면수나 준치는 저학력의 주부들이 더 많이 구입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표 5). 대졸 이상 학력의 주부들이 연어를 더 많이 구입한다는 사실은 연어의 판매처가 대개 재래시장보다는 대

형 수퍼마켓이나 백화점이므로 장보는 장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 외에 장어나 방어 등의 구입량도 대졸이상의 주부들에서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환살 생선 중 학력이 다른 두 군에서 구입량에 차이를 보인 것은 대구나 명태로서 저학력의 주부들이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어와 송어 등은 주로 회로 먹는 고가의 선어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계 수입이 많은 고학력층의 주부들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리라고 추측한 바와 달리 두 군간의 구입량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생선은 집에서 직접 구입하여 먹는 경우보다는 외식을 통하여 먹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민어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으나 고학력층의 주부들이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예기, 붕어 등을 비롯하여 민물고기의 총 구입량은 저학력층의 주부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각류나 두족류의 경우 역시 가격이 높은 편이므로 수입이 많은 고학력층의 주부들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두 군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저가격의 냉동제품의 구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수한 칼슘 급원인 뱀어포는 고학력층의 주부들이 많이 구입하였으며 편의식품인 통조림은 고졸 이하의 학력군보다 오히려 고학력층의 주부들이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을 보여주어 일반적으로 편의식품에 대한 요구도는 고학력층에서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윤 등<sup>15)</sup>이 1998년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일부 주부들을 대상으로 편의식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하였을 때 '믿고 살 수 있는 품질이 우수한 편의식'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주부들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편의식품의 개발은 식품산업에서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다.

품종에 따라 구입량에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어패류의 총 구입량은 두 학력군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서울의 중상류층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저학력군에서는 생선 섭취량이 더 많았으며 고학력군에서는 육류의 섭취량이 더 많았었다는 장의 연구 보고<sup>13)</sup>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육류나 어류 총 구입량에서는 두 학력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 5) 과일류

과일류는 국내산 과일과 수입산 과일을 나누어 검토하였다. 국내산 과일의 구입량은 두 군에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학력군에서 자두와 풀을 더

<Table 5> Means of fish and shellfish purchase by education level  
(g/capita/day)

Food Item	Education Level		t-test
	≤ High school	≥ College	
Mackerel	16.94±3.16	14.81±1.74	
Anchovy, dried	7.22±1.49	4.87±0.65	
Pacific saury	2.79±1.02	2.60±0.75	
Alabesque greenling	3.10±0.99	1.47±0.41	
Eel	0.40±0.15	0.50±0.14	
Tuna	0.52±0.23	0.39±0.12	
Naked sand lance	0.59±0.47	0.24±0.15	
Salmon	0.04±0.04	0.52±0.18	
Yellow tail	0.04±0.03	0.48±0.28	
Anchovy, raw	0.31±0.20	0.21±0.10	
Sardine	0.24±0.17	0.18±0.12	
Pacific herring	0.24±0.20	0.18±0.06	
Horse mackerel	0.24±0.21	0.07±0.05	
Dark-colored fish total	32.50±4.44	26.20±2.42	
Pacific cod, Alaska pollack	8.66±1.64	4.42±0.72	
Hair tail	6.39±1.04	6.51±0.89	
Yellow croaker, raw	5.55±1.01	6.02±1.05	
Yellow croaker salt-curd, dried	2.04±0.37	3.46±0.84	
Flat fish, Bastard halibut	3.25±1.43	2.22±0.47	
Trout,	0.95±0.27	0.90±0.16	
Harvest fish	0.33±0.17	0.89±0.31	
Sea bream	0.35±0.20	0.52±0.16	
Skate ray	0.14±0.05	0.15±0.10	
Sweet fish	0.00±0.00	0.13±0.11	
Croaker	0.01±0.01	0.13±0.06	p=0.066
Light-colored fish total	27.57±3.50	25.36±2.56	
Crucian carp	0.45±0.26	0.03±0.03	p=0.102
Loach	0.35±0.16	0.19±0.07	
Cat fish	0.06±0.03	0.00±0.00	p=0.100
Goby	0.06±0.05	0.00±0.00	
Fresh-water fish total	0.91±0.42	0.21±0.08	p=0.105
Common squid, Ochellatus octopus	15.29±4.16	12.17±1.69	
Crab	6.34±1.73	3.72±0.37	
Clam	3.80±0.87	3.84±0.81	
Shrimp	1.32±0.33	1.89±0.30	
Whip-arm octopus	1.06±0.38	1.43±0.23	
Turban shell, Snail	0.90±0.39	0.53±0.40	
Common octopus	0.28±0.15	0.41±0.17	
Sea cucumber	0.19±0.12	0.12±0.04	
Abalone	0.19±0.12	0.04±0.02	
Shell, crustacea total	29.34±5.14	23.92±2.23	
can	1.10±0.32	2.27±0.60	
Icefish, dried strip	0.04±0.02	0.13±0.03	
Fish & Shellfish Total	91.43±9.63	77.94±5.08	

p<0.05 \* p<0.01 \*\* p<0.001 \*\*\*

많이 소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입과일 구입량은 주로 고학력의 주부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90%의 신뢰도에서 메론, 키위, 자몽, 오렌지 등을 대출 이상의 주부들이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연중 대전지역의 주부들이 가장 많은 량을 구입했던 국내산 과일은 수박과 끌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과와 배로 나타났다. 수입산 과일로서는 가장 많이 구입한 바나나를 제외하면 다른 수입 과일의 절대 구입량은 적은 편이었다. 김효정 등<sup>16)</sup>은 영남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입 농산물의 구입실태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값이싼 수입품을 구매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본보의 결과에서는 고학력군에서 가격이 비싼 수입과일을 선호함은 물론 가격이싼 바나나나 파인애플의 구입량에서도 저학력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의 주부들이 전반적으로 과일도 다양하게 소비하며 수입과일의 이용도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lt;Table 6&gt; Means of fruit purchase by education level

(g/capita/day)

Food Item	Education Level		t-test
	High school or below	College or above	
Water melon	138.21±16.48	125.31±11.30	p=0.052
Citrus fruit	38.24±5.06	54.41±6.53	
Apple	30.33±3.46	32.03±3.29	
Pear	25.07±4.33	28.51±3.35	
Musk melon	19.73±3.07	20.13±2.36	
Grape	20.40±2.89	19.54±2.44	
Strawberry	17.72±2.21	17.96±1.77	
Peach	16.56±2.30	18.54±2.85	
Persimmon	4.15±0.82	5.12±0.73	
Plum	1.72±0.48	3.18±0.62	
Apricot	0.39±0.20	0.59±0.22	p=0.066
Domestic fruit total	312.20±29.19	325.11±22.42	
Banana	14.99±3.59	15.13±2.25	p=0.054
Orange	2.84±1.03	6.51±1.58	
melon	1.52±0.60	3.87±1.17	
Pineapple	2.07±0.89	1.92±0.48	
Kiwi	1.20±0.50	2.42±0.51	
Grape fruit	0.23±0.12	0.78±0.28	
Lemon	0.41±0.11	0.63±0.21	
Imported fruit total	23.23±4.25	31.12±4.25	
Dried fruits	1.12±0.28	0.71±0.24	
Can	0.76±0.17	1.17±0.37	
Fruit Total	337.31±30.49	358.11±24.23	

#### 6) 유제품 및 난류

유제품의 구입량은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우유와 치즈, 버터 등을 고학력군에서 더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고학력의 주부들이 유제품을 더 많이 구입하였음은 역시 이들의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채소의 구입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주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을 조리하게 되면 가족들의 음식기호도를 다양화시킬 수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교류가 많아지는 현대인들에게는 바람직한 성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난류는 고학력층의 주부들보다 저학력층의 주부들이 많이 구입하는 경향을 보여주어 진의 연구<sup>12)</sup>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 7) 동물성 식품 및 식물성 식품의 구입비율

곡류와 채소류, 과일류 등의 식물성 식품과 육류, 어패류, 유류, 난류 등의 동물성 식품의 구입량과 총 식품 구입량을 산출하여 보았을 때 고졸이하 학력층의 주부에서 식물성 식품의 구입량이 많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동물성 식품과 총 식품 구입량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식물성 식품에 대한 동물성 식품의 비율과 식품 총계에 대한 동물성 식품의 비율은 대졸이상의 학력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아 학력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동물성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8). 본 연구에서 1인 1일당 총 식품 구입량 중 동물성식품의 구입비율은 25~30%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대개 식물성 식품의 폐기율이 동물성 식품보다 높음을 고려할 때 실제로 본

&lt;Table 7&gt; Means of dairy product and egg purchase by education level

(g/capita/day)

Food Item	Education Level		t-test
	≤ High school	≥ College	
Cow's milk	70.22±6.58	123.23±7.59	***
Yogurt, liquid	27.32±4.12	21.64±2.97	
Yogurt, curd	16.06±2.81	14.18±1.82	
Ice cream	11.93±1.74	11.86±1.49	
Cheese	1.43±0.43	7.66±1.24	***
Butter	0.76±0.26	1.69±0.20	**
Dairy Product Total	127.50±9.51	179.79±9.19	***
Chicken's egg	38.14±3.30	31.86±2.09	p=0.110
Quail's egg	3.01±0.81	2.40±0.57	
Duck's egg	0.01±0.01	0.09±0.06	
Eggs Total	41.15±3.38	34.35±2.31	p=0.087

<Table 8> Means of animal, plant, and total food purchase by education level  
(g/capita/day)

Food Item	Education Level		t-test
	≤ High school	≥ College	
Foods from plant sources	1061.2±60.8	938.2±39.4	p=0.077
Foods from animal sources	353.1±20.0	381.5±15.3	
Animal/plant(%)	38.10±2.77	45.37±1.91	*
Animal/total food(%)	25.86±1.15	29.95±0.84	**
Total food	1414.3±68.5	1319.7±48.3	

연구의 조사 대상이 되었던 주부들이 섭취한 식물성 식품의 섭취량은 구입량에서 산출된 식물성 식품비율에 많이 못 미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동물성 식품의 섭취비율은 구입량으로 산출된 결과보다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 93년 이래로 동물성 식품의 섭취비율이 19-20%에 달하고 있었으며<sup>17)</sup> 성인의 식습관 변화를 조사하였던 최근의 연구보고<sup>12)</sup>에서는 2년 전에 비하여 더 많이 먹는 식품으로 육류와 우유, 달걀 등을 들고 있어 최근 한국인들의 동물성 식품의 섭취비율은 너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건강지향적인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부들이 스스로의 식생활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주부들은 자신에 의하여 조성되는 가족의 식습관에도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고 바람직한 식생활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8) 구입 식품의 다양성

각 주부가 구입한 식품의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한 식품의 가짓수를 식품항목별로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두류, 민물고기, 난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군에서 고학력의 주부들일수록 식품 선택의 폭이 넓음을 볼 수 있었다(표 9). 즉, 구입하고 있는 식품의 가짓수가 많아 식생활의 다양성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특히 학력이 다른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식품은 주식류, 해조류, 민물고기류, 갑각 및 두족류, 낙농제품 등이었으며 이 중 민물고기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군에서 고학력의 주부들이 다양하게 식품을 선택하여 구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과일류에서는 구입하는 수입과일의 가짓수가 고학력층의 주부들에서 높은 값을 보여주었으나 유의성은 크지 않았다(p=0.063).

이상의 결과로부터 대전 지역의 학력수준이 높은

<Table 9> Numbers of purchased food items by education level  
(g/capita/day)

Food Item	Education Level		t-test
	≤ High school	≥ College	
Cereals	8.87 ± 0.37	9.83 ± 0.23	*
Potatoes	1.81 ± 0.06	1.81 ± 0.04	
Beans	3.03 ± 0.23	2.77 ± 0.16	
Staple Food Total	13.71 ± 0.55	14.41 ± 0.33	
Light-colored vegetables	9.13 ± 0.27	9.66 ± 0.25	
Dark-colored vegetables	12.18 ± 0.39	12.97 ± 0.33	
Mushrooms	2.76 ± 0.14	2.86 ± 0.09	
Seaweeds	2.77 ± 0.09	3.08 ± 0.07	**
Vegetables Total	26.84 ± 0.74	28.57 ± 0.61	
Dark-colored fishes	3.43 ± 0.15	3.59 ± 0.17	
Light-colored fishes	3.53 ± 0.21	3.91 ± 0.16	
Fresh-water fishes	0.37 ± 0.11	0.08 ± 0.02	**
Shell, crustacea	3.19 ± 0.20	3.74 ± 0.16	*
Fish & Shellfish Total	10.51 ± 0.50	11.32 ± 0.41	
Domestic fruits	8.75 ± 0.21	8.96 ± 0.14	
Imported fruits	2.51 ± 0.25	3.07 ± 0.18	p=0.063
Fruit Total	11.25 ± 0.37	12.02 ± 0.27	
Dairy Product Total	4.09 ± 0.16	4.91 ± 0.11	***
Eggs Total	1.66 ± 0.06	1.59 ± 0.05	

\* p<0.05, \*\* p<0.01, \*\*\* p<0.001

주부들은 저학력군에 비해 빵, 스파게티, 샐러드용 채소, 육류, 낙농제품의 구입이 많았으며 수입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식생활 내용은 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생활이 서구화되어가면서 동물성 식품의 구입량은 증가하고 있어 모든 주부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식생활 진단방법과 바람직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V. 요약 및 결론

대전에 거주하는 30-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일반환경과 식품의 구입실태를 조사한 자료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주부들의 나이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가계당 월 수입은 저학력층에서는 100-199만원, 고학력층에서는 200-299만원이 가장 많았다. 앵겔 계수는 대부분 10-30%의 범위에 속하였다.

2) 식품구입실태 조사

① 곡류군에서는 쌀과 보리의 구입량은 저학력군에서 높았으며 기타의 잡곡은 고학력군에서 많

- 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군은 빵의 소비량이 많았으며 마카로니나 스파게티 등의 구입량도 월등히 높았다.
- ② 채소군에서는 김치의 재료로 쓰인 두, 배추 등의 담색채소의 구입량이 저학력층의 주부들에서 많았고 양상치, 브로콜리, 피망 등은 대졸이상의 고학력군에서 많이 구입되었다.
  - ③ 육류에서는 고학력군에서 쇠고기를 많이 소비하고 저학력군에서는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가공품으로서는 전반적으로 햄을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었다.
  - ④ 어패류에서는 저학력군에서 대구, 명태 등의 활살생선을 많이 구입하였고 고학력군에서는 연어와 뱃어포를 더 많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⑤ 과일의 구입량에 있어서 두 군간에 크게 유의적 차이를 보이는 품목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두 군의 주부들의 총 과일 구입량은 비슷하였으나 고학력군의 주부들이 수입과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 ⑥ 우유, 치즈, 버터와 같은 유제품류는 고학력군에서 많이 구입하였다.
  - ⑦ 총 식품 구입량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식품 충계에 대한 동물성 식품의 퍼센트는 고학력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 ⑧ 저학력층에 비해 고학력을 가진 주부들이 선택하여 구입한 식품의 가짓수가 더 많았던 품목은 주식류, 해조류, 갑각류 및 두족류, 낙농제품들이었으며 민물생선류는 저학력층에서 더 다양하게 구입하였다.
- 이상의 결과로부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에 비해 외식과 가공식품의 구입을 선호하며 동물성 식품의 소비율이 높고 식품 선택의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참고 문헌

- 1) Jin YH. Attitudes and behaviors related to fruit and vegetables among housewives in the small city. *Korean J Diet Culture* 15(3): 175-188, 2000
- 2) Kang KJ, Chung MS. A survey on housewives' consumption pattern and nutrition knowledge about vegetables. *Korean J Dietary Culture* 10(5): 377- 390, 1995
- 3) Hong SY, Woo KJ, Kim KA. 인천시 주부들의 식품구매 실태조사, 인하 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논문집), p.237- 259 (1995),
- 4) Lee JM, Lee HS. The effect of change of the distribution structure on the food purchasing behavior. *Korean J Dietary Culture* 13(1): 37-46, 1998
- 5) Jae MK. Convenience food type and convenience behavior of wives in Korea. *Jo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7(1): 75-84 (1998)
- 6) Reilly MD.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407-418, 1982
- 7) Lee KY. A Study on the commodity substitution of housework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thesis, 1987
- 8) Kim KE. Korean female adolescents' food attitudes and food intake relative to the Korean Food Tower. Iowa State University, Doctoral thesis, 1999
- 9) Kim IS, Yu HH, Park SH. A survey on consenscious of eating out behavior and food waste by housewives in Jeonbuk area. *Korean J Dietary Culture* 15(5): 2000
- 10) Moon JW, Ahn JD. A survey on housewives' dining-out behavior in Pusan. *Korean J Dietary Culture* 11(3) : 359- 367, 1996
- 11)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Report on 1998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dietary intake survey), 1999
- 12) Jin YH. Dietary behaviors of adults in Kimcheon city. *Korean J Dietary Culture* 16(1): 43-57, 2001
- 13) Chang N. Changes in dietary habits of adults with meddle and upper income levels in Seoul. *Korean J Nutr* 29(5): 547-558, 1996
- 14) Kim EM, Kim YM, Jo JH, Woo SJ. A study on the housewives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seafoods and fermented seafoods add Kimchi. *Korean J Dietary Culture* 13(1): 19-26, 1998
- 15) Yoon S, Shon KH, Kwak TK, Kim JS, Kwon DJ. Consumer trends on dietary and food purchasing behaviors and perception for the convenience foods. *Korean J Dietary Culture* 13(3): 197-206, 1998
- 16) Kim HC, Kim MR. A study for the purchase status of the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nd consumers' recognition of the labelling for the country of origin in Youngnam region. *Korean J Dietary Culture* 12(5): 477- 493, 1997
- 17)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Report on 1998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dietary intake survey), 1999